

가을 끝자락, 소리숲 울림따라 양림을 걷고 보다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8곳, 파빌리온 5곳...동시대미술 '한자리' 다채로운 소리 풍경, 흥미로운 예술 경험 선사...가을 정취만끽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폐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부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광주 양림동 일대 본전시 8곳, 파빌리온 5곳 전시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양림-소리숲'을 주제로 펼쳐지는 본전시 8곳에서는 10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각 나라와 기관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전시를 펼쳐내고 있는 5개 파빌리온에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드라마 '정년이', '이두나' 등 촬영지로 유명한 양림동 호랑나무가시언덕의 가을 풍경은 인기가 높아 전시와 함께 코스 여행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양림동 골목골목에 숨겨진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양림-소리숲' 8개 공간서 펼쳐지는 신선한 소리 풍경

본전시와 연결된 '양림-소리숲'은 8개의 '관(공간)'에서 다양한 협업 작품과 소리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먼저 양림샬롱에는 마리나 로젠랜드의 작품 '뮤(μ)'가 설치돼 있다. 틸테이블 바늘이 LP판 위에서 생기는 마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담은 영상이 재현돼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희원미술관에서는 한국 전통 악기인 양금 악보를 서양식 오선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담은 김영은 작가의 비디오 '오선보 이야기'가 전시된다. 소리와 듣기가 특정한 역

사적 맥락에서 인식되는 과정, 악보 번역 과정에서 잃어버린 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노력이 담겨 있다.

양림문화센터에서는 광주 출신 김자이, 김형숙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자이 작가는 로즈마리, 바질, 민트 등 허브를 재배한 뒤 마을 카페에 음료 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적 소비 대안을 제시한다. 김형숙 작가는 서로 다른 시기의 나주를 비교한 비디오 작업 '새로운 집'을 통해 도시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보여준다.

사단 아피프가 재창조한 옛 파출소에는 판소리 명창 김소라와 협업한 '영원의 파빌리온'이 전시돼 있다. 작가는 잃어버린 권위와 인권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곳에 담아냈다. 바닥에는 '다시 찾았도다'라는 알루미늄 동전 작품이 흩어져 있다.

용봉동 본전시 참여작가인 미라 만은 이곳 양림동 빈 집에도 다양한 작품을 연결해 놓는다. 판소리 '심청가'를 재해석해 개인의 기억·이주·가족 희생이라는 주제를 다룬 '엄마의 기억은 다들 수도', 장지로 덮인 방에 붓글씨를 쓰게 하는 참여형 퍼포먼스 '음의 눈, 눈의 음' 등 여러 개 방과 옥상 외부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의 핫스팟으로 꼽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는 작가 4명 작품이 전시된다. 줄리앙 아브라함 토가의 '바이오포크'는 인터뷰·내레이션·사운드 구성이 어우러져 영화 속 소리의 역할을 탐구한다.

6개의 발광 안테나와 4개의 스피커로 이뤄진 전형산의 '불신의 유예 #3: contact'도



사진 위로부터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줄리앙 아브라함 토가작 '바이오포크', 옛파출소건물...사단 아피프작 '영원의 파빌리온'.

설치돼 있다. 이밖에도 리디아 오라만의 '희망의 집 아카이브', 손수민의 '3개의 스마트폰, 22개의 충전기, 4개의 콘센트'가 전시 중이다.

한부철 갤러리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와 기계가 그려내는 드로잉으로 가득 찬 화면이 전시돼 있다. 안젤라 블록의 '다이너믹 스테레오 드로잉 머신'은 전시장에 울리는 음악에 반응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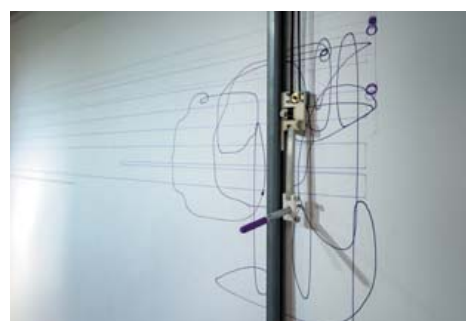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에는 안드루스 아루티우니안 작가의 '무제(Untitled)'가 전시되고 있다. 즉흥연주를 느끼게 재녹음해 재생한 결과물로, '시간의 소리'를 표현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양림동 채운 덴마크·캐나다·폴란드·스페인 예술·오스트리아 파빌리온

양림동에서는 본전시 이외에도 총 5개의 파빌리온을 만나볼 수 있다. 덴마크 파빌리온(씨움)의 '쇼케이스'에서는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 작가 4명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다.

폴란드 파빌리온(이이남 스튜디오)은 내적인 평화와 깊은 사유를 중시하는 '정적 쾌락'을 주제로 한다. 그중 프세미스와프 야시엘스키의 '나를' 기억해줘는 유압 시스템을 사용한 설치 작품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고향과 또 다른 장소들'을 주제로 하는 캐



양림문화센터...김자이작 '휴식의 기술 Ver. 도시농부(Re-member)' (사진 위)와 한부철 갤러리...안젤라 블록작 '다이너믹 스테레오 드로잉 머신'

나다 파빌리온(양림미술관)은 광주 작가들과 캐나다 이누이트 작가들 간 협업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장을 감싸는 대형 벽화와 개별 작가들의 드로잉을 통해 캐나다 북극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이강하미술관)은 갤러리를 클립으로 변모시킨 '클립 리에종'을 선보인다. 보라색 라텍스 물결로 덮인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은 작가가 영감을 받은 카메라를 경험하며 사운드 스케이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전시장과 건축 디자인 사이의 대화, 물질주의적 접근을 통해 광주라는 도시에서 회복을 위한 공간을 탐색하는 스페인 예술(양림동 펜곤마를 공여거리 22동)의 '휴: 안팎'은 가정을 안식처로 상기시키는 작품을 전시 중이다. /최명진 기자



오는 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그라시아합창단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선사하는 'X-마스 칸타타'

내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국제 무대에서 최정상의 실력을 인정받은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올해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12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라시

아스합창단의 광주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7시30분 2차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오페라, 뮤지컬, 합창의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번 공연은 총 2막으로 구성됐다.

1막은 2천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2막은 한스 크리스티안 앤더슨의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한 뮤지컬로, 말괄량이 소녀 안나가 크리스마스 기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는 각박한 시대 속 서로의 소중함을

을 일깨워 주는 공연이다.

3막은 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명곡 무대다. 깨끗한 인도네이션과 환상적인 화음으로 벅찬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갖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따스한 위로와 기쁨을 품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